

성지순례(핫즈)

이슬람의 마지막 지주이자 가장 훌륭한 제도의 하나는 핫즈 혹은 메카 순례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 핫즈를 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무슬림 모두의 의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해 있고 건강이 상당히 양호하며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안전한 무슬림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 핫즈를 해야 한다. 여기서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핫즈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빚을 진 경우에는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가진 게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핫즈는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시작되는데 그것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기 때문에 핫즈와 라마단은 여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한다. 순례자들은 계층과 문화의 구별이 지워지는 단순한 복장을 걸침으로써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게 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핫즈 의식에는 카아바 주변을 7차례 순회하는 일과 하갈(Hagar, 아브라함의 부인)이 물을 찾아 그러했던 것처럼 사파와 마르위의 산들 사이를 7차례 돌아다니는 일이 포함된다. 그 다음 순례자들은 아라파트(Arafat)의 넓은 평원 위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동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행연습으로 흔히 생각되는 것이다.

핫즈 여정은 또 하나의 이슬람 고

유의 특징이다. 그것은 여러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목적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서로를 알고 공통의 문제를 연구하며 자신들의 전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슬림들이 만나는 연례 최대의 신앙집회다. 또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대의 정기 평화회의다. 핫즈 여정에서는 평화가 으뜸가는 주제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며, 무슬림 상호간과 동물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새와 심지어 곤충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타인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다른 생물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엄금이다.

2. 이슬람의 보편성과 무슬림의 형제애와 평등을 건전하게 현현한다. 사회의 각계각층, 지구의 구석구석으로부터 무슬림은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하여 메카로 모인다. 무슬림들은 똑같이

이슬람의 마지막 지주이자 가장 훌륭한 제도의 하나는 핫즈 혹은 메카 순례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 핫즈를 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무슬림 모두의 의무다.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하는 무슬림들의 모습

간편하게 옷을 입고, 같은 규정을 지키며 같은 시간에 같은 식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기원을 드린다. 왕이 따로 없다. 하나님에 대한 모두의 충성이 있을 뿐이다. 귀족이 따로 없다. 겸손과 헌신이 있을 뿐이다.

3. 무슬림의 하나님에 대한 서약과 물질적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게 한다.

4. 순례자들에게 선지자무함만의 영적, 역사적 환경을 숙지시켜, 뜨거운 감화를 받게 하고 신앙심을 강화시킨다.

5. 아브라함과 이쉬마엘(이브라힘과 이스라엘)이 행한 신성한 의식을 기념한다. 아브라함과 이쉬마엘은 지상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곧 메카의 카아바를 최초로 순례하였다고 한다.

6. 심판날의 대회를 상기시킨다. 이 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서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인종이나 혈통의 우수성을 주장할 수 없는 날이 이 날이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일신교의 중심지였고,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순수한 일신교인 이슬람의 중심지로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오직 메카만이 현세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역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햇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풍요케 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여정, 열렬하게 헌신하고 수련의 체험을 하는 여정, 인도주의적 관심과 고무적인 지식의 여정(이 모든 것이 이슬람의 하나의 제도 속에서 종합된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헌신의 전 여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무슬림들이 메카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지, 돌에 입을 맞추거나, 어떤 인간, 혹은 반신 인간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카아바의 흑석에 입을 맞추거나, 그것을 만지는 것은 임의적 행동이지 의무나 명령이 아니다. 흑석을 신앙하거나 거기에 어떤 미신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을 맞추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다. 카아바를 개축할 당시, 카아바의 기초에 흑석을 놓았던 선지자무함만에 대한 존경의 증거로서 또한 그분에 대한 사랑의 상징으로서만, 흑석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만지고 가리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 사건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무함만은 중재자로 지명된 사람으로 나온다. 이슬람이 도래하기 수년 전, 카아바를 개축하고 있을 당시, 흑석을 그 기초 위에 놓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흑석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영광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부족의 족장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

고, 성역에는 내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흑석은 돌 한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족장들은 이것을 극진하게 숭상하였다. 이 흑석이 아마 고대에 건축한 대사원의 유물로써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돌일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존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돌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관한 한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족장들은 자기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맨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논쟁의 해결을 맡기로 합의했다. 무함만이 바로 맨 처음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함만은 천 조각에 그 흑석을 싸기로 결정하고 논쟁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각 족장마다, 그 작업에서 한 몫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무함만의 현명한 결정을 흡족히 여겨 즉시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것이 흑석의 이야기에 내포된 교훈이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이 흑석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경의의 표시로서 현명한 중재자인 무함만을 기념하는 행위인 것이다. 비교하면 이점이 더 뚜렷해진다. 망명했다 귀국하는 애국자나 싸움터에서 귀환하는 군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의 국경선에 당도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예를 들어 국경선의 땅에다 입을 맞추거나 맨 처음 만나는 동포 몇 사람을 감정이 북받쳐 포옹하거나 경계표를 보고 감탄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수공이 가는 행동으로 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애국자나 군인이 땅을 숭배하거나 자기 동포를 신격화하거나 경계표에 신적인 속성이 있음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순례자들의 행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메카의 카아바는 이슬람의 영적 중심지이며 모든 무슬림의 영적 조국이다. 순례자가 메카에 당도하면 망명했다 귀국하는 애국자나 결정적 전투를 치르고 개선하는 군인과 같은 기분이 들것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해석이 아니다. 역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초기의 무슬림들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카아바에서 숭배할 권리를 거부당했다. 망명에서 돌아온 이들의 주 목적지는 카아바였다. 기쁨에 넘쳐 성전에 들어간 이들은 거기에 있는 우상과 형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나서 순례의 의식을 끝마쳤다.

에이드 알 아드하(EDUL-ADHA)

에이드 알 아드하는 희생을 통한 축제이다. 그것은 두 가지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에이드 알 아드하 기간 동안 우리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정신, 그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황폐해진 카바를 재건할 사람으로 택했고 그의 아들 이쉬마엘이 그를 도왔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사막에서 몇 달을 보내야 했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은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일단 카바가 마침내 완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쉬마엘을 희생함을 통하여 그 날(둘 핫지의 10번째 되는 날)을 축하할 것을 요청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쉬마엘을 희생할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던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바칠 수 있었다. 그의 신앙은 마지막 순간 그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하여지는 보상을 받았다. 칼이 거의 다 내려쳐던 순간, 그곳에는 이쉬마엘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

두 번째 에이드 알 아드하는 매년 2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성지 순례를 행하기 위해 메카와 메디나로 향하는 핫지(이슬람의 5

가지 의무 중 하나)가 끝나는 날이다. 핫지를 행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평등의 의미로 똑같은 옷을 입는다. 그들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소이며, 우리가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곳인 카바 주위를 걷는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에이드 알 아드하를 경축하는 것은 에이드 알 피트르와 비슷하다. 이슬람에서는 부자가 된 모든 무슬림들이 희생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으로 와집(필수적)이다. 축제의 첫 삼일 동안에 희생을 바쳐야 한다. 희생으로는 낙타,

소, 물소, 양 그리고 암소 등을 바칠 수 있다. 낙타는 5살, 소나 물소는 2살, 양이나 암소는 1살 또는 살이 썩은 6개월째의 양이나 암소를 바칠 수 있다. 하지만 암퇘이나 수탉을 희생으로 바칠 수 없다. 희생된 동물의 고기의 3분의 1은 음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3분의 1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과 공유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기나 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그 분에 대한 신앙과 선지자 아브라함(이브라힘)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진 그 역사적 사건의 확인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꺼이 이 명령에 복종할 각오가 서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양 한 마리가 대신 희생되었다. 희생을 바치는 것은 이 때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거행하는 축전이 되었다.





The Pilgrimage (Hajj)

The final pillar and one of the finest institutions of Islam is the Hajj or pilgrimage to Mecca. The performance of the Hajj is obligatory, at least once in a lifetime, upon every Muslim, male or female, who is mentally, financially and physically fit. The Muslim who is of responsible age, in fairly good health, and is financially capable and secure must make the Hajj at least once in his or her lifetime. The financial security here means that he should have enough to cover his own expenses and those of his dependents, and to pay his debts, if he is in debt, until he completes the course of Hajj.

The annual Hajj begins in the twelfth month of the Islamic year (which is lunar, not solar, so that Hajj and Ramadan fall sometimes in summer, sometimes in winter). Pilgrims wear special clothes: simple garments which strip away distinctions of class and culture, so that all stand equal before God.

The rites of the Hajj, which are of Abrahamic origin, include circling the Ka'ba seven times, and going seven times between the mountains of Safa and Marwa as did Hagar during her search for water. Then the pilgrims stand together on the wide plain of Arafat and join in prayers for God's forgiveness, in what is often thought of as a preview of the Last Judgment.

The course of Hajj is another unique characteristic of Islam, it is enjoined by God to serve many purposes among which are the following:

1. It is the largest annual convention of Faith where Muslims meet to know one another, study their common affairs and promote their general welfare. It is also the greatest regular conference of peace known in the history of mankind. In the course of Hajj peace is the dominant theme; peace with God and one's soul, peace with one another and with animals, peace with birds and even with insects. To disturb the peace of anyone or any creatures in any shape or form is strictly prohibited.

2. It is a wholesome demonstration of the universality of Islam and the brotherhood and equality of the Muslims. From all walks of life, from all trades and classes, and from every corner of the globe the Muslims assemble at Mecca in response to the call of God. They dress in the same simple way, observe the same regulations, utter the same supplication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way, for the same end. There is no royalty, but loyalty of all to God. There is no aristocracy, but humility and devotion.

3. It is to confirm the commitment of the Muslims to God and their readiness to forsake the material interests in His service.

4. It is to acquaint the pilgrims with the spiritu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of Prophet Muhammad, so that they may derive warm inspirations and strengthen their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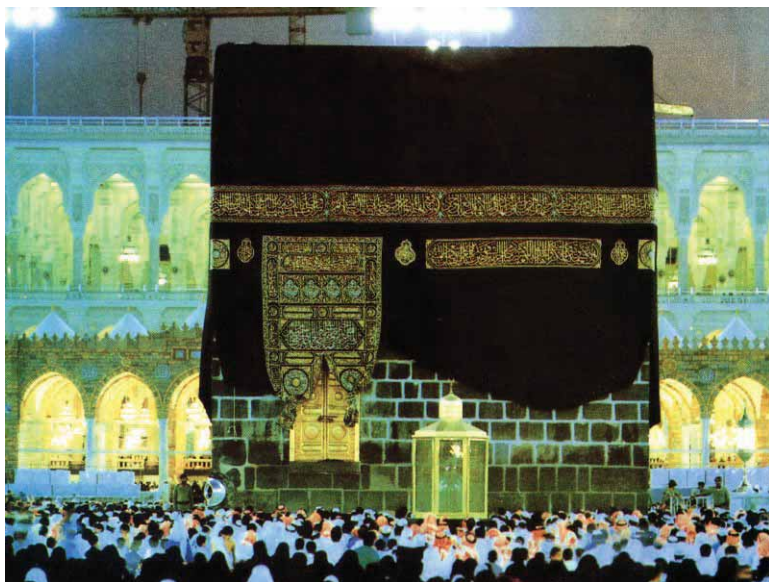
5. It is to commemorate the Divine rituals observed by Abraham and Ishmael (Ibraheem and Isma'eel), who are known to have been the first pilgrims to the first house of God on earth, i.e., the Ka'bah at Mecca (Makkah).

6. It is a reminder of the Grand Assembly on the day of Judgement when people will stand equal before God, waiting for their Final Destiny, and where no superiority of race or stock can be claimed. It is also a reminder of the fact that Mecca alone, in the whole existing world, was honored by God in being the center of monotheism since the time of Abraham, and that it will continue to be the center of Islam, the religion of pure monotheism, till the end of time.

disciplinary experience, a course of humanitarian interests and inspiring knowledge -all put together in one single institution of Islam.

It should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entire course of devotion is to God alone. The Muslims go to Mecca in glory of God, not to kiss a stone or worship a man or a semi-divinity. Kissing or touching the Black Stone at the Ka'bah is an optional action, not an obligation or a prescription. Those who kiss the Black Stone or touch it do not do it because they have faith in the Stone or attribute any superstitious qualities to it. Their Faith is in God only. They kiss or touch or point to the Stone only as a token of respect or a symbol of love for Prophet Muhammad, who laid the Stone at the

foundation of the Ka'bah when it was reconstructed. That event has a special significance. It depicts Muhammad as a man designated for peace. When the Ka'bah was under reconstruction, some years before the advent of Islam, the Black Stone was to be laid at its foundation. The tribal chieftains had a quarrelsome dispute over him who was to have the honor of restoring the Stone. This was a very serious matter and the shadows of civil war hung over the holy place. The Stone was held in especially high reverence by the chieftains, although it was nothing more than a piece of stone. This reverence may be attributed to the



In the performance of Hajj it can easily be observed that it is a course of spiritual enrichment and moral rearmament, a course of intensified devotion and

fact that the Stone was connected with Prophet Abraham, the Great Grandfather of the Arabs, and that it was, perhaps, the only solid stone remaining from



the antique structure of the Sacred Edifice. Be that as it may, the Stone as such has no significance whatsoever as far as Islam and the Muslims are concerned.

When the chieftains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among themselves, they agreed to let the first incomer decide the issue. Muhammad was the first incomer. He then decided to wrap up the Stone in a piece of cloth and asked the disputants to hold it together and restore it in such a way that each chieftain would have had a part in the operation. They were happy with his wise decision and put it into effect immediately. Thus the issue died out and peace was maintained. This is the moral story of the Black Stone. So when the pilgrims kiss the Stone or point at it with reverence, they do so in remembrance of Muhammad, the wise peace-maker. The point may become clearer by comparison. It is a natural thing for a good patriot returning from exile, or a fighting soldier coming back from the battlefield to do certain things upon reaching the borders of his beloved homeland. For example, he may kiss the ground at the borders, or embrace with deep emotions the first few compatriots he meets, or show admiration for some landmarks. This is considered normal and appreciable, but no one would think that the patriot or the soldier worships the ground or deifies his fellow compatriots or attributes some Divine qualities to the

landmarks. The behavior of the pilgrims should be interpreted in a similar way. The Ka'bah at Mecca is the spiritual center of Islam and the spiritual homeland of every Muslim. When the pilgrim reaches Mecca his feelings would be like those of a patriot coming home from exile or a triumphant soldier returning from a decisive battle. This is not a figurative interpretation. It corresponds with the facts of history. The early Muslims were expelled out of their home and forced to live in exile for years. They were denied the right to worship in the Ka'bah, the most sacred house of God in existence. When they returned from exile, the Ka'bah was their main destination. They joyfully entered the Sacred Shrine, destroyed all the idols and images that were there, and completed the rites of pilgrimage.

Sacrifice is not the meat or blood that pleases God. It is the expression of thankfulness to Him, the affirmation of faith in Him, that historic event when Prophet Abraham (Ibraheem) was ordered to offer his son in sacrifice, an order which the father and son were ready to obey unquestioningly. But the son's life was spared and ransomed by a ram. The offering of sacrifice has become an annual celebration to commemorate the occasion and thank God for His favors.



이번 달의 질문

질문: 무슬림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 처음으로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왔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로 단 한 분이며, 오직 홀로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들 만들어 내곤 했다.

불행히도 몇몇의 사람들은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믿는다. 이것은 무슬림이 때때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수 세기에 걸쳐 이슬람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퍼진 거짓과 왜곡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무슬림은 선지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의 하나님이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 ALLAAH'라는 말은 단순히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랍어 이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랍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명칭 할 때 쓰는 말과도 같다. 만약 당신이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본다면, 당신은 영어로 God라는 말이 쓰이는 자리에 ALLAAH라는 말이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알라(SWT)의 개념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자.

알라는 누구이신가?

비록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대한 각각의 개념은 꽤 다르다. 예를 들어 무슬림은 하나님이 세 분(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일체 설과 하나님의 성육신화(예수가 그 분에게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하여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슬람의 가르침들은 그런 신비나 역설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 가르침들은 솔직하고 분명하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그 분은 그 분 자체로 전지전능 하시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으로의 육신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슬람의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인간 개개인이 중간적 매개자 없이도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사적이고 충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신은 신일 뿐이고 신의 창조물인 인간은 인간일 뿐, 신성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무슬림은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단 한 분이며, 어떤 중개자 없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신다고 믿는다. 그것이 이슬람의 진실되고 명료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속죄양이나 희생양 없이도 그의 창조물들에게 그의 영광과 자비를 수여하심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단 한 분의 진실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홀로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다.

Question for Month

Question: Muslims worship a different God?

Answer: First of all, there is only One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and all of mankind. Throughout history, people have created false gods in their minds and come up with false ideas about Almighty God, but regardless of this there is still only One True God - and He alone is worthy of worship. Unfortunately, some non-Muslims have come to incorrectly believe that Muslims worship a different God than Jews and Christians. This might be due to the fact that Muslims sometimes refer to God as "Allah", but also because over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many lies and distortions spread by the enemies of Islam. In actuality, Muslims worship the God of Noah, Abraham, Moses and Jesus --- the same God as Christians and Jews. The word "Allah" is simply the Arabic word for Almighty God and it is the same word that Arabic speaking Christians and Jews use to refer to God. If you pick up an Arabic translation of the Christian Bible, you will see the word "Allah" where "God" is used in English. For more information on the word "Allah", please read: Who is Allah? But even though Muslims, Jews and Christians believe in the same God, their concepts about Him differ quite a bit. For example, Muslims reject the idea of the Trinity or that God has become "incarnate" in the world. Also, the teachings of Islam do not rely on or appeal to "mystery" or "parado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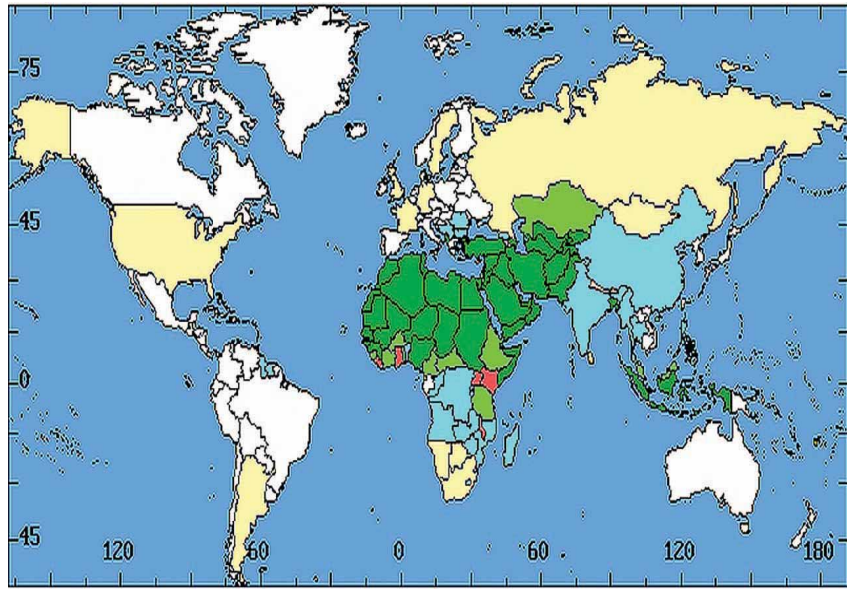
they are straightforward and clear. Islam teaches that God is Merciful, Loving and Compassionate and that He has no need to become man (nor do humans need for Him to).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Islam is that it teaches that man can have a personal and fulfilling relationship with Almighty God without compromising the transcendence of God. In Islam there is no ambiguity in Divinity --- God is God and man is man. Muslims believe that God is the "Most Merciful", and that he deals directly with human-beings without the need of any intermediary. Actually, the phrase "In the Name of God, the Compassionate, the Merciful" is one of the most repeated verses in the Holy Qur'an. Additionally, the pure and straightforward teachings of Islam demand that Almighty God be approached directly and without intermediaries. This is because Muslims believe that God is completely in control of everything and that He can bestow His Grace and Mercy on His creatures as He pleases - no Atonement, Incarnation or blood sacrifice is necessary. In summary, Islam calls people to submit to the One True God and to worship Him alone.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다

무슬림은 지난 50년간 235%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그 수는 16억에 달합니다. 상대적으로 크리스트교는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힌두교는 117%, 불교는 63%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슬람은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미국에서 무슬림의 수는 1천만명에 달하며, 유대인들은 6백만 명입니다.)

성장률은 1935의 World Almanac과 Book of Facts, 1983년의 Readers Digest Almanac과 Yearbook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종교입니다.



무슬림 인구(Muslims Population)

한국의 무슬림

내가 무슬림이 된 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슬림이 되지 3년 된 성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초고3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제가 이슬람을 믿게 된 동기와 이슬람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슬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접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부 무지한 이들이 이야기 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된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 이슬람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면 흔히 테러리스트이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그리고 못 살고 불쌍한 사람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태고부터 내려오는 사막에 처진 야만인들을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항상 보고 즐기는 영화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다 그렇듯이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불행, 부모님의 이혼 뒤로는 종교에 더 관심이 많아져 접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소개받은 터키인들을 만날 때 저는 터번을 두르고 여자들을 끼고 정말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나 나올 것 같은 옷과 칼을 생각했던 나는 무슬림도 다른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내가 세계인으로서 얼마나 명칭했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하나님(아랍어로는 알라)을 믿는 종교로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신이 아닌 예언자들로서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무함마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에게 인간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꾸란이라는 하나님의

책들을 믿습니다. 또 천사들을 믿으며 정명을 믿고 내세와 심판의 날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는 신앙선언과 예배, 자선, 단식,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그 외 이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계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세계의 1/5의 인구가 믿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 안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계의 가장 많은 이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마음속에 평화를 갖게 합니다. 삶의 목표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뛰어난 감성으로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이슬람은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몇 안 되는 종교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방글라데시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도 이슬람을 95% 이상이 믿는 나라입니다.

한 없이 불행했던 나의 삶이 이슬람 안에서 어떻게 꽃 필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제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슬람을 찾았기 때문이지만 종교로의 도피는 아닙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보호하래 나쁜 길에 빠져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광신적인 것 같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텐데 이슬람은 종교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슬람은 Lagos&Patos(이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종교로서 믿음과 삶에서 실천하는 종교이기에 광신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 깊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가 말한 이 몇 가지 안 되는 것은 이슬람의 아름다움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 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 안에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덮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존경받는 자가 되는데

(Why a nun can be
covered from head to toe and she's
respected for devotion herself to God,)

무슬림 여성은
똑같이 옷을 입으면
왜 억압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가?

(and when a muslimah
does that, she is
“oppressed”?)



한국에서의 이슬람

한국 전쟁(1950. 6-1953. 7)의 폐허속에 이슬람의 씨가 이 땅에 뿌러지기 시작하였으니, 유엔 평화 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터키군의 주베르 코치와 압둘라흐만 형제는 북한 공산당과 전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천막으로 이슬람 성원을 세우고 한국인에게 이슬람 복음을 전하고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

터키군의 지원으로 서울 이문동에 퀸세트 임시성원과 텐트 3동으로 청진학원을 개원하고 예배근행과 아울러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우 청소년 약 120명에게 중등과정 교육과 이슬람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초기 한국 이슬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한국 이슬람교 협회”가 발족되고 초대 회장에 우마르 김진규 형제를 추대하였다.

한편 이슬람 국가와의 유대강화와 협조체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임원진이 이슬람국가를 순방하고 최초로 말레이시아 클랑 무슬림 대학에 있는 무슬림 지도자들의 내한을 적극 추진, 이슬람 선교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무슬림 형제들은 ‘한국 이슬람교 협회’를 재정비 하고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를 설립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1955년). 이로써 체계적인 한국 이슬람 선교의 기틀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한국 무슬림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성원이 준공되었다. 중앙성원과 이슬람센터의 개원은 현재까지의 한국 이슬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20여 이슬람국가에서 온 55명의 대표들이 개원식에 참석하여 한국인 사회에 이슬람 복음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장엄한 개원식의 결과로서 이슬람에 귀의하는 형제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초의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한국에 급

속한 이슬람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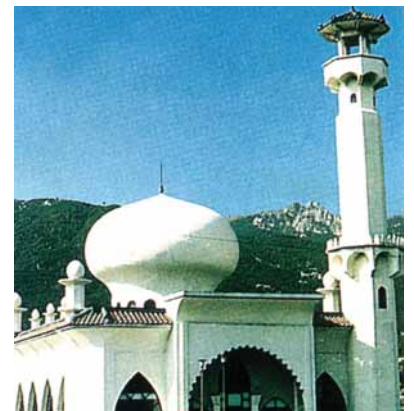
한편 한국 무슬림은 이슬람 신앙을 고취시키고 무슬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1979년 성지순례단을 구성하여 메카 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중동건설부(1974-1980)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관심도를 고조시켜 이슬람선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6년에는 전주지역에 이슬람의 씨앗이 뿌려져 지방선교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국에서의 이슬람의 확산은 이슬람 각국의 관심을 불러모아 리비아, 쿠웨이트, 이집트의 독지가들의 지원으로 여러 지역에 성원이 건립되었다. 현재는 울산과 제주에도 임시 예배실이 설치되어 지역선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이 이 땅에 뿌리내린지 약 50년까지 한국에는 6개의 이슬람 성원과 40개의 이슬람지회, 그리고 약 4만5천 명의 무슬림들이 알라의 복음에 충실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



부산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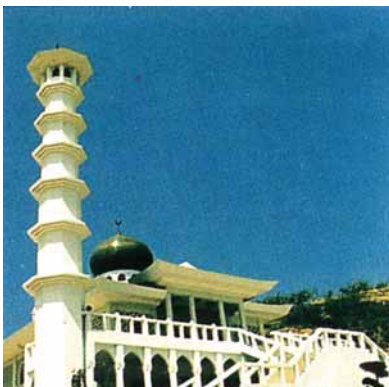
History of Islam in Korea



광주성원



안양성원



전주성원

Islam has been present in this country for a very long time. In the 8th and 9th centuries, Arab sailors and merchants often frequented the coastal waters of South and East Asia. As early as 845 A.D. their books mentioned Korea, and did so in the most flattering of terms: "Over the sea beyond China lies a mountainous country called Silla, rich in gold. Muslims who arrive there by accident are so attracted by its character that they stayed there forever and do not want to leave. Indeed, at that time a number of Muslim merchants made it their home.

Some Koreans also made epic trips to the West. Records confirm that in 727 the famous Buddhist monk Heocho visited the Arab Near East on his way back from India.

During the Koryo period (918-1392) Kaesong, then the nation's capital, was home to a thriving Muslim community, and there was a mosque as well. Members of one of the country's clans, the Changs of Toksu, still recall that the clan's founder was a Muslim who came to Korea during the Koryo era. However, the Yi dynasty, which seized power in 1392, was much more introspective than its predecessor, so these early connections with the Near East gradually withered. Muslims were assimilated and eventually abandoned their faith.

The resurrection of Islam took place during the Korean War. The war was fought largely by U.S. forces, but with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among them Turkey, at that time a close ally of Washington. The Turkish forces were among the most numerous, some 15,000 soldiers, and best trained non-American units to take part in th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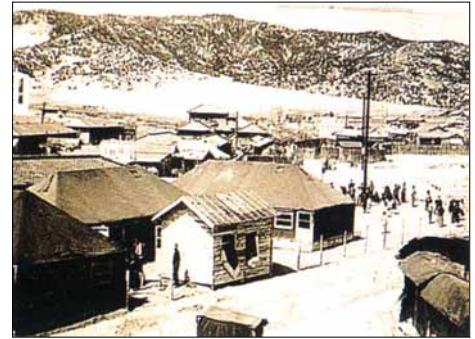
The Turks brought Islam back to Korea. They proved to be not only good fighters but also successful missionaries. Their "tent mosques", which initially served the soldiers themselves, eventually became major centers of missionary activity. The Turks allowed and encouraged Korean converts to take part in prayers and attend services. The Turks were also engaged in large-scale humanitarian efforts, which left a favorable, lasting impression on the locals.

When the war finished and the Turkish units returned home, they left behind a small but active local Muslim community. The Korean Muslim Society was officially inaugurated in 1955. This body, later re-named the Korean Islamic Foundation, became the major organization for believers here. The society sent members overseas for religious education and tried to establish a permanent mosque with the help of a Malaysian government grant, but was unable to. Prayers were held in makeshift buildings, with minarets made of wooden planks and iron frames.

The 1960s brought a new impetus to Islam in this country. At that time a large number of Korean construction workers were dispatched to the Near East, where domestic companies were engaged in numerous projects. Some of these workers came back as converted Muslims and engaged in missionary activity among their fellows.

In the 1970s, the first permanent mosque was established in Itaewon, constructed with a grant provided by Saudi Arabia and opened in 1976. At that time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buildings in the entire city, and is still impressive.

The number of Muslims here is estimated to be about 45,000 in addition to some 100,000 foreign workers from Muslim countries. There are six permanent mosques around the country, and in general, Islam is a growing religion here.



최초의 한국 이슬람 성원



한국이슬람교 이맘 무함만 윤두영부부



안내 책자

효과적인 기도 드리기(I)

매 번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기도하는 법 배우기

지음: Saeed ibn Wahf al-Qahtani

옮김: Aminah Zahid(곽은미)

기도(두아)란 단순한 몇 마디의 중얼거림 훨씬 그 이상입니다. 두아(기도)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도움 혹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의 뜻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누구나 느끼는 영감이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감정, 욕망, 슬픔의 진실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창조주께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할 수 있는 비밀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밤낮으로 우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의 도움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종교와 정신적 자아에 꼭 필요한 생혈(生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아마도 깊은 상실에 빠져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압도당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또한 정신에 투여하는 중요한 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스트레스와 우울, 공포의 경감을 돕는 가장 성공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창조주께 염원할 때, 우리는 심정을 그 분께 털어놓고, 그 분의 도움과 이해와 인도를 구하며,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 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 혹은 곤궁한 시기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역시 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지금의 물질주의 세계 속에 휘말려 기도 자체를 아주 잊어버리고 지내기 십상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하지도 않고, 또 창조주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지도 못한 채, 어떤 도움이나 인도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한 번의 숨조차 내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지침과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지침과 조건을 알아보고 또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원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창조주께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고 다음에 기술된 단계에 따른 올바른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받아들여져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샬라.

꾸란과 순나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치

꾸란에 이르기를: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2:186] 또 다른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답하여 주리라."[40:60]

순나에 이르기를: 안노만 이븐 바쉬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도(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바다(숭배)입니다."(아부 다우드와 티르미피)

아부 후레이라가 전하는 선지자(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께 소원을 빌지 않는 자에 대하여 노여워하십니다.(에마드와 티르미피)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

기도할 때 적용하는 특정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 분께 기원하고 예배하라."[7:29]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그 분만을 경배하라..."[40:14] 선지자(평화가 그 분께 깃들기를)께서는 이븐 아바스가 전하는 하디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청 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에마드, 티르미피)

샤리아(이슬람법)와의 일치

선지자(평화가 그 분께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우리 것이 아닌 새로이 개혁한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선지자(평화가 그 분께 깃들기를)의 순나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의도는 진실하지만 순나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순나에 따른다고 해도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지 않다면 그런 예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 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36:82] 하나님께서 만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있으되 필요한 양 외에는 내려주지 아니 하시니라."[15:21], 아브 파르가 전하는 꾸드시 하디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종복들이여, 너희 인간과 짐들 모두가 한 장소에 올라 나에게 소원을 각기 말하고 내가 너희 모두가 요구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 해도, 그것은 바늘 하나를 바다에 빠뜨린 다음 다시 바늘을 건져낸 후에, 줄어든 바다의 양만큼이라도 내가 가진 것의 양을 줄일 수 없느니라." (무슬림)

침착한 태도

기도할 때에는 항상 주의 깊은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스부하나후와 와탈라-의미: 하나님이어 영광을 받으소서,께서는 주의가 산만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븐 라잡이 이르기를, “침착한 태도는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부 후레라는 하나님의 사도(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에 대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주의하고 태만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티르미피) 따라서 우리는 완벽히 집중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주의 산만한 행동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단호한 결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 또한 필요조건입니다. 어떤 예외의 여지를 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부 후레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아니면,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호소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분의 의지에 반한 일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티르미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살라,”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살라.” 기도를 올릴 때 “인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포기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부 후레라가 전하는

선지자(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라고 성급히 말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부카리와 무슬림). 또 아부 후레라는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나쁜 짓을 이루게 해달라고 바라거나, 친척 관계를 단절하게 해달라는 소원이나 혹은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복이 바라는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분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급함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답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였으나 소원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그만두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무슬림). 따라서 우리는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간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연기가 그 사람을 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라도 기도를 올린다면 여러분이 원했던 좋은 것을 얻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만큼의 해악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저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아니 하시니라”[13:11]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상태가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한 그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상태가 나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한 그 나쁜 상태를 계속 두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어떤 죄라도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탄의 사악한 속삭임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의무 행위를 다하지 못함

선행을 하는 것 자체는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후파이파는 선지자(평화가 그 분께 깃들기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 분의 손안에 나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 분께 기도하여도 그 기도는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티르미피)

그렇다면, 성원에서 드리는 파즈르 살랏(해가 뜨기전 예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근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카(이슬람세)를 내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저지르는 하람(금지된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람 음식이나 술 또는 하람 의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엄격히 금지된 것입니다. 아부 후레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평화가 그 분께 깃들기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善)이시므로 오로지 선한 것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그대 사도들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일을 하여라.’ ‘오 너희 믿는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먹어라.’ 그 분께서는 한 남자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오랜 여행으로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먼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간구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의 음식은 허락되지 않은 음식이었고 그의 음료 또한 금지된 음료였으며 그의 의복도 역시 허락되지 않은 의복이었습니다. 그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무슬림)

이 주제에 대해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제 1대 칼리파인 아부 바크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딸 아이샤가 전하기를, “아부 바크르의 종이 어느 때처럼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대개의 경우 음식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식은 모두 그 자신의 할랄(허락된 것) 수입으로 얻은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처럼 종이 식사를 가져오자 아부 바크르는 그 음식이 어디서 낳는지 묻지 않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이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부 바크르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이 답하기를, ‘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마술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술을 부리는지 실지로 알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마술을 부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당신께 드린 것은 내가 그 돈으로 산 음식입니다. 아부 바크르는 갑자기 손을 입 속에 밀어 넣어 위가 빌 때까지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부카리)

에마드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오직 한 입만을 먹었을 지라도 이렇게 모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부 바크르가 답했습니다. “그 음식이 전부 토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부 토해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제일 먼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입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흡수되었을까 걱정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음식과 음료, 의복 전부 할랄(허락된 것)만을 택해야 합니다.



월간 소식(Monthly News)

● 서울중앙성원

서울중앙성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아랍어, 목요일 하디스, 금요일 이슬람교리 및 배경, 토요일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서울 중앙성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4-7307, 793-6908

● Seoul Central Masjid

Seoul Central Masjid established Quran, Hadis, Islamic and Arabic classes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s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Seoul Central Masjid.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Arabic

Lecturer: Abdul Rahman

Date: Every Thur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Hadith

Date: Every Friday, 16:00~17:30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Miss. Hilba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Quran

Lecturer: Ali

Address: Seoul Central Masjid

732-21, Hannam-dong, Yongsan-ku, Seoul,

● 전주성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아스르예배 후에 이슬람교리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주성원 주소:

(561-8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전화 : (063) 243-1483

● Jeonju Masjid

Jeonju Masjid established Islamic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Jeonju Masjid.

Date: Every after asr praying.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Abdul Wahab Zaid

Address: 1567-10, 2-ga Inhu-dong,

Duk-jin Gu, Chonju,

● 파주성원

파주성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사 예배후에는 꾸란의 해석,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파주성원 주소:

(413-813)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

전화:(031) 946-2110

Fax:(031) 946 2126

E-mail: pajumasjid@yahoo.com

● Paju Masjid

Paju Masjid established Quran tafsir Quran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Paju Masjid.

Date: Every Saturday after 1pm

Topic of Lecture: Quran Tafsir

Date: Every Sunday (11:00 am)

Topic of Lecture: Teaching Quran

전화 : (031) 444-7757

안양성원에서 월말마다 아침 9시 반에는 이슬람에 대한 질문과 대답 모임이 있고 10시 15분부터는 꾸란 공부가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아침 파즈르예배 후에는 이슬람교리, 주후르예배 후에는 하디스 공부, 아스르예배 후에는 이슬람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부산성원

(609-811)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

전화 : (051) 518-9991

(051) 518-9992

제2기 아랍어 및 이슬람교리 무료강좌 안내

기간 : 2002. 12. 28 - 2003. 03. 14 (약3개월)

일시 : 매주 토요일 pm 5시-6:30분(90분)

강사: 아랍어전공내국인 및 원어민 강사

대상 : 모든 성인남녀

강의목적 : 한국인들에게 상기와 같은 강좌를 통한 이슬람의 자연스런 접근과 이슬람소개 실행

Period: 28. 12. 2002 - 14. 3. 2003

Date: Every Saturday, 17:00~18:30

Topic of Lecture: Arabic and Islamic Studies

Address: Busan Masjid

30-1 Namsan-dong, Kemjeoing-ku, Busan

Every last Saturday of month

9:30 Question-Answer meeting

10:15 Teaching Quran Sunday

After Fajr: Islamic Studies

After Zuhur: Hadith Studies

After Asr: Discussion about Islam

Address: Anyang Masjid

618-132, Anyang-5-dong,

Anyang, Kyunggi-do,

● 제주임시성원(Jeju Masjid)

(690-802) 제주도 노형동 939 정한오피스텔 1215호

전화: (064) 712 1215

●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대구 이슬람 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Ph: 053-523-2171

JAMIA MASJID USMAN

ISLAMIC CENTER TAEGU

#202-6, Chuk Chan-dong, DaI Seo-gu, Daegu, Korea.

Tel: (053) 523-2171

● 광주성원

(464-807)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

전화: (031) 761-3424

광주성원에서는 금요일 합동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Address: Kwangju Masjid

48-9 Yeokri Kongju-youb

Kwangju-kun Kyung-do

Jummah Khutba start at 13:00

● 포천소흘성원

(430-828)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소흘 7리

전화: (031) 542 4696

● 안양성원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18-132(430-828)

contents

성지순례(하즈)	2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2
에이드 알 아드하(EDUL-ADHA)	4	한국에서의 이슬람	13
The Pilgrimage (Hajj)	5	History of Islam in Korea	14
이번 달의 질문	8	효과적인 기도(1)	16
Question for Month	9	월간 소식(Monthly News)	20
사도 무하마드의 기도(Prophet's Dua)	10	2월 예배시간표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Prayer timetable for February)	22
성장하고 있는 종교다	10		
한국의 무슬림	11		

● 2003년 2월 예배시간표
(Timetable for Prayers February 2003)

Date	Day	Fajr	Sunrise	Zohr	Asr	Magrib	Isha
Feb.1	Sa	6:08	7:38	12:46	15:33	17:54	19:19
2	Su	6:07	7:37	12:46	15:34	17:55	19:20
3	M	6:06	7:36	12:46	15:34	17:56	19:21
4	Tu	6:06	7:35	12:46	15:35	17:57	19:21
5	W	6:05	7:34	12:46	15:36	17:58	19:22
6	Th	6:04	7:33	12:46	15:37	17:59	19:23
7	F	6:03	7:32	12:46	15:38	18:00	19:24
8	Sa	6:02	7:31	12:46	15:38	18:01	19:25
9	Su	6:01	7:30	12:46	15:39	18:02	19:26
10	M	6:00	7:29	12:46	15:40	18:03	19:27
11	Tu	5:59	7:28	12:46	15:41	18:04	19:28
12	W	5:58	7:27	12:46	15:42	18:05	19:29
13	Th	5:57	7:25	12:46	15:43	18:07	19:30
14	F	5:56	7:24	12:46	15:43	18:08	19:30
15	Sa	5:55	7:23	12:46	15:44	18:09	19:31
16	Su	5:54	7:22	12:46	15:45	18:10	19:32
17	M	5:53	7:21	12:46	15:46	18:11	19:33
18	Tu	5:52	7:20	12:46	15:47	18:12	19:34
19	W	5:51	7:19	12:46	15:48	18:13	19:36
20	Th	5:50	7:18	12:46	15:49	18:14	19:37
21	F	5:49	7:17	12:46	15:49	18:15	19:38
22	Sa	5:47	7:14	12:45	15:49	18:16	19:38
23	Su	5:46	7:13	12:45	15:50	18:17	19:39
24	M	5:45	7:12	12:45	15:51	18:18	19:40
25	Tu	5:44	7:11	12:45	15:52	18:19	19:41
26	W	5:43	7:10	12:45	15:53	18:20	19:42
27	Th	5:42	7:09	12:45	15:53	18:21	19:43
28	F	5:41	7:07	12:45	15:54	18:23	19:44

- The direction of Qiblah in Korea approximately 260°Latitude West.
- Adhan on Jumaah will be called at 13.00 o' c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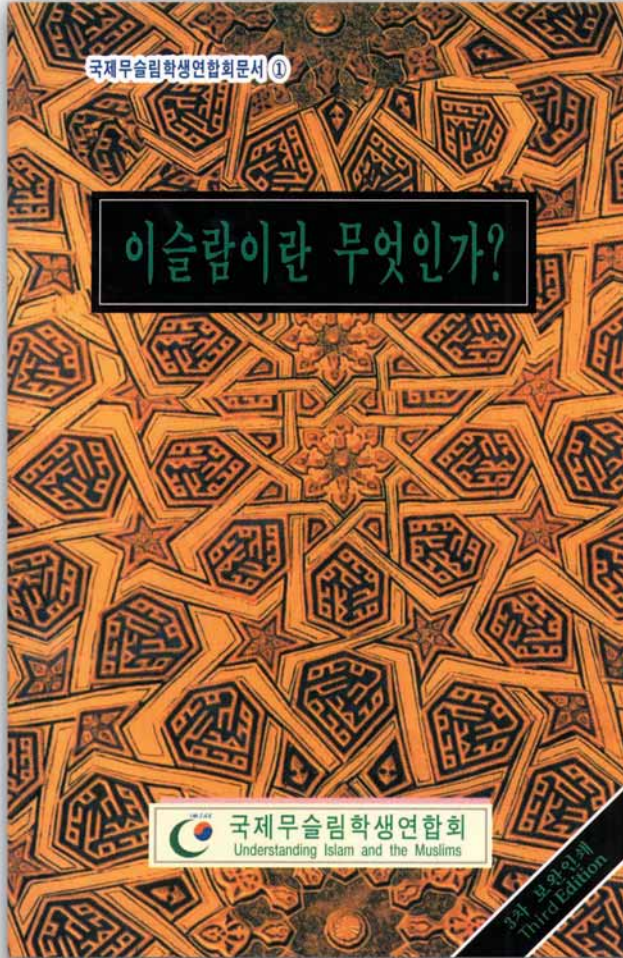

IMSAA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119-611 서울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476호
 Homepage: <http://www.muslimkorea.net> E-mail: muslimkorea@hanmail.ne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K.P.O. BOX 1476 SEOUL, SOUTH KOREA

● 이 예배시간표는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인양, 수원, 인천, 의정부, 광주 등 경기도 지방과 전라북도의 전주 등에서 허용되며 부산시는 이 시간표보다 5분이나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주의하 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2분정도 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가까운 성원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This time table for Gyeonggi-do Province like Seoul, Incheon, Anyang, Uijeongbu, Gwangju and als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nam-do Provinces are same. But Busan city is 5 minutes before this time and Jeju Island is about 2 minutes after this times. For further more information, call nearest masque.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은 무엇인가?

이슬람은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 등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하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다.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이슬람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의 뜻에 복종할 때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종교이다. 인간이 자기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는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이며, 둘째는 인간이 자기 완성을 실현하고 생활 속에 정의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행동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풍족히 마련해 주셨다.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 속에 모든 종류의 자원을 마련하셔서 인간이 마음껏 이용하게 하셨다.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에 응하여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로 택하여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생활의 규범을 계시하셨다. 이 생활규범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파한 종교인 이슬람인 것이다.

무슬림들은 누구인가?

남 필리핀제도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를 가로지르는 광대한 범위의 민족, 국적 그리고 문화권의 16억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된 이슬람 신앙에 의해 하나로 뭉쳐져 있다. 약 18%의 무슬림들이 아랍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공동사회는 인도네시아에 있다. 그리고 아시아의 상당히 많은 지역들과 대부분의 아프리카가 무슬림 사회이며 소수이기는 하나 의미가 있는 무슬림을 중앙아시아, 중국, 북남미 그리고 유럽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슬림들은 무엇을 믿는가?

무슬림들은 유일하시며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인류에게 전파한 사도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보낸 성서들, 심판의 날과 행동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사후의 삶을 믿고 있다. 무슬림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 엘리야, 요나, 세레자 요한 그리고 예수에 이르는 일련의 사도들 (그 분들에게 평화와 깃들기들)을 믿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지의 재확인이며 그 이전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며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인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무함마드 사도에게 계시되었다.

어떻게 해야 무슬림이 되는가?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진실로 믿고 또한 이를 고백한 사람은 이슬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선언에 의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 및 그 분들이 자기와 오신 성서들에 대한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으로서의 선언을 하고 난 후에는 무슬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